

# 2017년 북한시장 동향\*

임강택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ktlim@kinu.or.kr

## I. 2017년 북한시장의 주요 특징

2017년 북한시장의 주요 특징을 꼽으라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가 전보다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북한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작년 말부터 북한시장의 경기 하락 조짐들이 많이 관찰되었고, 그것의 주된 원인이 경제제재 영향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7년 들어서 이런 경기침체 현상들이 훨씬 더 심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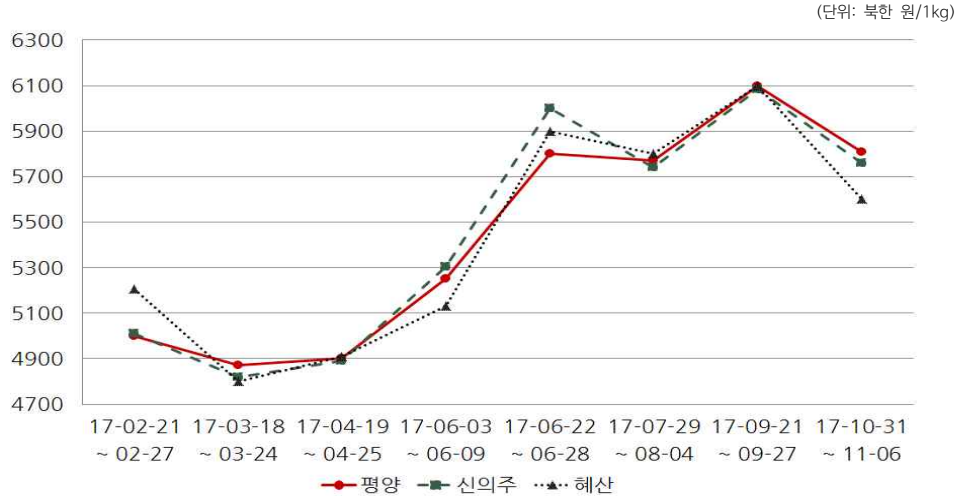
제재 효과가 북한시장에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시장 물가는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부분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휘발유 가격은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한때는 3배 가깝게 증가하기도 하였지만, 12월 초 현재 연 초에 비교해서 2배 정도 인상된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 중국 위안화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외환 부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 대북제재가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 II. 전반적인 물가 추세

대북제재가 북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물가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2~11월의 시장 물가는 5,000~6,000원

\* 본고는 2017년 11월 29일에 개최된 「2017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함.

[그림 1] 쌀의 시장가격 변화 추이



자료: DailyNK, 「北장마당 동향」(<http://www.dailyn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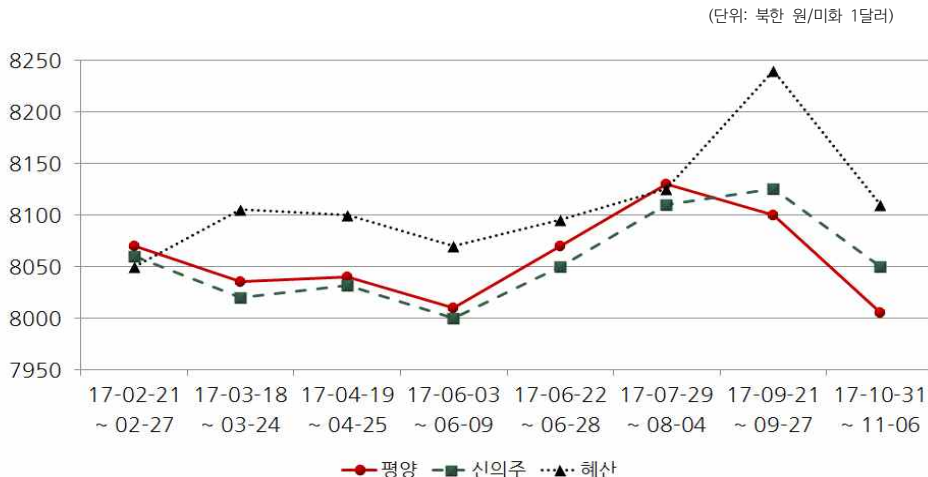
사이에서 변동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속화됨에도 불구하고 쌀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 민생 품목의 물가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기본적으로 대북제재가 북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해봄으로써 물가 변동폭이 작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제재가 북한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이다. 대북제재로 북한의 무역을 위축시킴으로써 유동성을 감소시킨 효과가 있고 이것이 전반적인 북한의 경기침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제재 영향을 품목별로 살펴보는 것이다. 생필품 등 북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건 가격이 생각처럼 많이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제재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북제재가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균일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필품은 여전히 순조롭게 거래중이며 이러한 특징이 가격의 안정세로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북한당국이나 무역업자들이 원하기만 하면 쌀과 같은 민생 품목들은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는 점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시장의 수요이다.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들에서는 수요가 적어서 문제지, 공급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다 점에서 시장이 제재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면에 전략물자로 활용될 수 있는 원료나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대북제재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고위층의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해야 하는 품목과 주요 생산재의 가격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간접적인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제재가 어떻게 북한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 그 연결고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의 환율 추이에서도 제재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의 차원에서 보면 외환수입이 줄어들어서 외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데 화폐 공급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감지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별 국가기관에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수입이 가능한 물품들을 사들여와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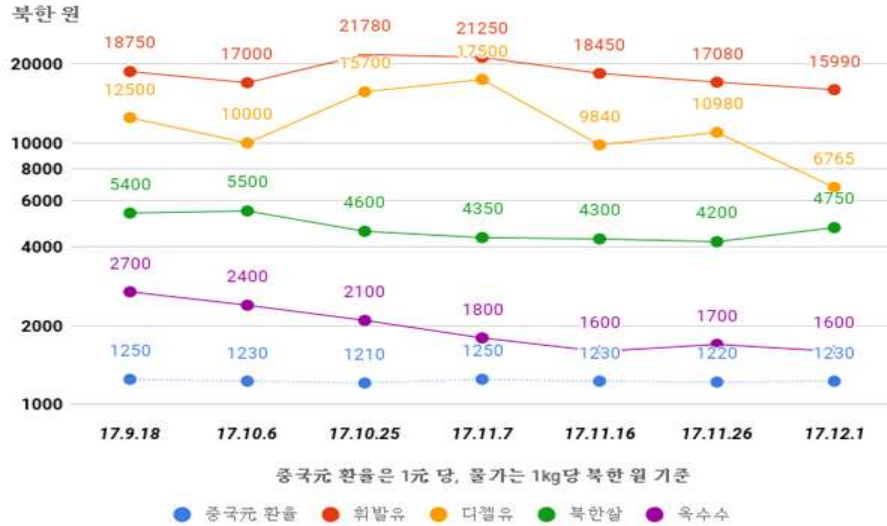
[그림 3]의 유류가격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하반기 유류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9월 사이에 급등세를 보여 최대 3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11월 들어와서는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9월까지 유류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대북제재로 인한 공급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공급 통제와 지속적인 공급 감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추가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11월에 들어와서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통해 공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유류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2] 북한의 시장환율 변화 추이



자료: DailyNK, 「北장마당 동향」(<http://www.dailynk.com>).

[그림 3] 유류가격의 변화 추이



2017년 11월 16일 조사 (중국1원 환율. 물가는 1kg당 북한 원 기준, 괄호 안은 한국원 계산)

휘발유	디젤유	북한쌀	옥수수	중국원 환율
18,450원	9,840원	4,300원	1,600원	1,230원
(약 2,550원)	(약 1,360원)	(약 590원)	(약 220원)	

자료: 『Radio Free Asia』, 「북 기름값 상승세 주춤, 큰 폭으로 떨어져」, 2017. 11. 18.

### Ⅲ. 2017년 북한시장 평가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2017년 북한시장은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된 것은 명확한 것 같다. 특히 올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의 대북제재 강도가 유례없이 강력해지면서 경제제재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서 대북제재가 일차적으로는 대중국 수출이 중단되거나 크게 감소된 품목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북한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고, 수출입 감소로 줄어든 유동성이 시장 경기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북한경제의 유동성 감소로 인한 시장수요의 전체적인 감소(시장 경기 침체현상), ▲ 중국자본의 투자 중단 혹은 감소로 인해 그동안 중국자본의 투자가 많았던 지역의 경기가 침체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득 감소(지역 시장 경기에 타격)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경지역의 광산이나 임가공분야에 대한 투자가 중단되면서 북한 경기가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출입과 관련하여 ▲ 석탄, 수산업 품목의 대중국 수출 중단과 감소가 해당 품목의 국내 유통 증가로 이어져 ‘단기적인’ 시장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소비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결국은 생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 민생 품목의 경우에는 북한의 각 기관들이 자금 확보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수입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오히려 과다 수입 등으로 시장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그런 측면에서 식량 같은 민생 품목의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고, 이에따라 식량 등의 시장 물가 안정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 수입 통제 품목은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류 등 특정 품목들을 중심으로 시장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2차 가공품의 생산도 타격을 받아서 그와 관련된 상품의 시장가격 증가세가 불가피해 보인다.

#### IV. 향후 전망

조만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북한에서 시장 경기의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일반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그에 따른 북한 당국에 대한 불만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장을 통해서 운영자금을 확보하려는 국가기관들의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민생 관련 품목들의 경쟁적인 수입으로 인해 관련 상품을 취급해온 일반 주민들의 경제활동들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국가기관들의 활동들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이 활동들이 시장을 교란하는 요소로 작용해서 일반 주민들의 삶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식량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 물가는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나, 제재품목들의 시장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Radio Fee Asia』, 「북 기름값 상승세 주춤, 큰 폭으로 떨어져」, 2017. 11. 18.  
『DailyNK』, 「北장마당 동향」, 2017. 11. 18.